



금융감독원

보 도 자 료



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



보도	2023.11.8.(수) 14:00	배포	2023.11.8.(수)		
담당부서	IT검사국 검사기획팀	책임자	국 장	장성욱	(02-3145-7420)
		담당자	팀 장	이성욱	(02-3145-7415)
「금융IT 안전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」을 마련하였습니다.					

I . 추진 배경

- 금융권 전반에 디지털 금융이 확대됨에 따라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는 경우 심각한 금융소비자 불편 및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
 - 금융업계 IT내부통제 수준을 일정 부분 향상시키고 IT부문 개발·운영상의 문제점을 금융회사가 자율적·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
-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부터 7개 협회·중앙회와 공동으로 ‘금융IT 안전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’ 마련을 위한 T/F를 구성·운영하여
 - 전산사고의 주요 원인인 프로그램 오류, 비상대책, 성능관리 부분에 대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여 제시하고자
 - IT검사 사례 및 모범사례(Best Practice)를 기반으로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각 협회 주도 하에 금융회사 의견을 수렴하여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을 마련하였음

II.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

- **(주요내용)** IPO 등 대형이벤트 사전 대비, 비상대응 훈련 범위 확대, 프로그램 테스트·검증·배포 통제 강화 등 기준 제시

전산시스템 성능관리	비상대책 수립·운영	프로그램통제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성능관리임계치 설정 및 대응전략 수립 ② 대형이벤트 유입량 분석 및 예측 ③ 성능관리비상대책 마련 ④ 조직·내규 등 성능관리기반 확보 ⑤ 성능 관리 내부보고체계 수립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비상훈련 실효성 강화 및 훈련 결과 환류체계 ② 재해복구센터 전산자원 등 인프라 확충 ③ 전산센터 화재예방·대비 ④ 핵심업무 선정 절차 및 관련 부서별 역할 명확화 ⑤ 업무지속성 확보방안 점검 및 관련 시스템 구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제3자 검증·통제기능 강화 ② 테스트 역량 강화 (전담화, 자동화) ③ IT운영안정성을 위한 배포 전략 ④ 프로그램통제 관리 및 점검 강화 ⑤ 프로그램통제 절차 내부 교육 강화

■ **(기대효과)** IT운영능력 제고 및 복원력 향상 등 IT 안전성 강화로 증권사 MTS·HTS 접속 지연 등 서비스 중단 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

1 전산시스템 성능 관리

- **(목적)** 전산시스템 성능을 초과하는 이용자 집중으로 증권사 MTS·HTS 등이 지연, 중지되는 사고 예방
- **(주요 내용)** 전산자원별 임계치를 세분화하여 대응토록 하는 등 금융회사 IT 운영 능력 제고
 - 전산자원 사용량 임계치를 4단계(정상→주의→경계→심각)로 구분하고 경계 및 심각 징후 발생시 즉각 설비 증설 추진

- IPO 등 대형이벤트는 기획 단계부터 고객수요를 예측하고 시스템 처리능력을 검증하도록 하여 사용량이 집중되어 발생하는 사고를 사전에 대비

※ <참고> 시스템 성능관리 관련 사고 사례

- ◆ A증권사는 전산자원 증설 기준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지 않아, '23.6월 경계 수준의 사용량(CPU 사용량 65%↑)에 도달하였음에도 조치 없이 운영하다 '23.7월 MTS 중단
- ◆ '23.7월 B증권사는 공모주 청약 마감일에 집중된 청약 증거금 이체 신청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청약 마감시간을 30분 연장(16:00 → 16:30)

2 IT부문 비상대책 수립·운영

- (목적)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시 전자금융서비스가 장기간 중단되는 사고 예방
- (주요내용) 비상대응훈련 범위 확대 및 재해복구센터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IT복원력 향상
 - 주전산센터 마비시에도 핵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해 복구센터 인프라(DB·서버·통신망 등)를 충분히 확보
 - 실제 비상상황 발생시에도 전자금융서비스가 신속하게 복구 가능하도록 비상대응 훈련의 범위 확대

※ <참고> IT부문 비상대책 미흡 사례

- ◆ '22.10월 A전자금융업자는 인증기능을 제공하는 대외기관과의 연계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대체 수단도 마련하지 않아 대외기관 중단에 따라 간편결제 서비스가 중단
- ◆ '23.4월 금융권 비상대책 점검 결과 B증권사는 재해복구센터의 전산자원(CPU, 메모리 등)의 가용성능이 주전산센터 대비 25% 수준으로 확인됨

3 프로그램 통제 가이드라인

- (목적) 금융회사가 프로그램 변경 과정에서 모바일 뱅킹 등 전자금융서비스가 중단되는 사고를 예방
- (주요내용) 제3자 검증·통제 기능을 구축 및 전산프로그램 테스트역량 강화를 도모 등
 - 프로그램 변경시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하고, 개발·변경 내용 검증을 위한 별도 조직 구성
 - 프로그램을 신규로 개발하여 적용하는 경우 고객접속이 적은 시간에 수행토록 하여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

※ <참고> 프로그램 오류 관련 사고 사례

- ◆ '22.5월 A은행은 체크카드 사용이 활발한 21시경에 변경 프로그램을 배포하던 중 오류가 발생하여 약 20분 동안 8.7천명 이상의 체크카드 고객이 불편을 겪음
- ◆ '23.7월 B증권사는 MTS내 수익률 및 평가손익금액 계산 프로그램 변경시 충분한 테스트를 수행하지 않아 수익률 및 평가손익금액 표기 오류 발생

III. 최종 점검 및 향후 계획

- 11월 8일 금융협회·중앙회 간담회를 통해 시행시기를 조율하고 시행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종 점검하였으며,
 - 금번 가이드라인의 경우 IT운영 안정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 이기에 세부 구현 방식에 있어 각 회사별 상황에 따라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함을 논의하였음

[간담회 개요]

- ◆ 일시 : '23.11.8.(수) 14:00 ~ 15:00
- ◆ 장소 : 금융감독원 9층 회의실
- ◆ 참석자 : (금감원) 김병철 부원장보, IT검사국장
(협회·중앙회) 금융투자협회, 생명보험협회, 손해보험협회, 여신금융협회, 은행연합회, 저축은행중앙회, 핀테크산업협회

- 수립된 가이드라인은 7개 금융 협회·중앙회별 자체심의, 보고 등의 내부 절차를 거친 후 연내 시행할 예정이며,
 - 11월 하순부터 금융업권별 릴레이 설명회(협회·중앙회 주관)를 통해 가이드라인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할 계획임
- 향후에도 「금융IT 안전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」에 대해 업계의 피드백을 반영하고 부족한 부분은 협회·중앙회와 협의하여 지속 개선할 예정임

전산시스템 성능관리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

1. 임계치 설정 및 대응전략 수립

- 전산자원별 임계치를 4단계(정상→주의→경계→심각)로 관리하고 주의 단계에서는 증설 필요성을 검토, 경계·심각 단계에서는 즉각적인 증설 추진

2. 대형이벤트 유입량 분석 및 예측

- 금융회사별 대형이벤트 기준을 마련하여 이벤트 기획 단계에서 고객수요 예측과 처리능력 검증 결과를 CIO에게 보고하고 예비장비 확보 및 긴급증설체계 점검 등 이벤트에 대비

3. 성능관리 비상대책 마련

- 비정상적 트래픽 발생시 동시접속자를 통제하고, CPU·메모리 등 전산자원을 즉각 증설할 수 있는 체계 마련

4. 조직·내규 등 성능관리 기반 확보

- 전산시스템 전반의 성능관리 담당 조직을 갖추고, 성능 관리 절차와 담당 조직의 권한 등의 내용을 포함한 내규를 수립·운영

5. 성능관리 내부 보고체계 수립

- 전산 자원의 임계치가 경계 또는 심각 단계에 도달하는 경우 원인 분석을 실시하고 대응 방안이 포함된 성능관리보고서를 최고정보책임자(CIO)에게 지체없이 보고

IT부문 비상대책 수립·운영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

1. 비상훈련 실효성 강화 및 환류체계

- 핵심업무 전체에 대하여 최소 5년에 1회 이상 재해복구모의 훈련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, 훈련 결과 발견된 미흡 사항은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업무지속성 확보방안 등에 반영

2. 재해복구센터 인프라 확충

- 주전산센터 마비시에도 재해복구센터를 통해 핵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센터 인프라(DB·서버 등)를 확보하고, 주요 대외기관과의 통신 회선 구축을 의무화

3. 전산센터 화재 예방·대비

- 전산센터 화재 발생시 신고*, 초기대응 및 대피 절차를 업무지속성 확보방안의 상황별 대응절차에 포함

* 전산센터 화재임을 밝히고 발화원인(전기배터리 여부)과 진입경로를 안내

4. 핵심업무 선정 절차 및 관련 부서별 역할 명확화

- 핵심업무 선정시 전사적 운영리스크 또는 업무영향도 분석 결과를 반영하고, 핵심업무 선정 절차 내에 각 단위 업무의 소관 부서와의 합의·검토 절차 및 관련 보고 절차를 포함

5. 업무 지속성 확보 방안 점검 및 관련 시스템 구축

- 업무지속성 확보방안 관련 사용자 매뉴얼, 연락처 등을 원활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책자·서류를 사전에 비치하거나 자료가 등재된 시스템에 대한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토록 함

프로그램 통제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

1. 제3자 검증 · 통제 기능 강화

- 등록·변경·폐기 절차 및 정당성 검증 절차를 모두 내규에 반영하여 명확화하고, IT개발 경력자로 구성된 별도 조직에서 개발·변경·폐기 내용의 정당성을 검증

2. 테스트 역량 강화

- 운영시스템과 시스템 환경이 유사하면서도 가용성(부하) 테스트가 가능한 테스트 환경과 테스트 담당 조직을 준비토록 하고, 테스트 자동화 솔루션 도입 추진

3. IT운영 안정성을 위한 배포 전략

- 고객접속이 적은 시간에 프로그램 배포를 수행토록 하여 배포된 프로그램에서 오류 발생시에도 피해를 최소화

4. 프로그램 통제 관리 및 점검 강화

- 프로그램 등록·변경·폐기 절차 준수 여부 등 개발·테스트 시 통제 절차 준수 여부를 내부 감사자가 분기 1회 이상 점검

5. 프로그램 통제 절차 내부교육 강화

- 프로그램 통제 절차 미준수자, 신입 직원 등에게 연 1회 이상 프로그램 등록·변경·폐기 절차, 프로그램 테스트 절차, 운영 시스템 적용·배포 절차 등 교육토록 규정

① 「금융IT 안전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」의 법적 성격은?

- ☐ 금번 시행되는 가이드라인은 IT검사 지적사례 및 업계 모범 사례(Best Practice) 등을 취합하여 마련·권고한 것으로
 - 행정지도 등 금융 규제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 구속력은 없음
- ☐ 다만, 3개 가이드라인 모두 각각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있어
 - 가이드라인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하더라도 가이드라인 미준수 상태가 규정위반으로 이어질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

< 가이드라인 및 관련 전자금융감독규정 >

가이드라인	전자금융감독규정
전산시스템 성능관리 가이드라인	제25조(정보처리시스템의 성능관리)
IT부문 비상대책 수립·운용 가이드라인	제23조(비상대책 등의 수립·운용)
프로그램 통제 가이드라인	제29조(프로그램 통제)

② 성능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임계치 수치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?

예시) CPU 정상 임계치 60% 미만 → 50% 미만, 또는 60% 미만 → 70% 미만

- ☐ 해당 수치는 금융업권에서 운용중인 사례를 참고하여 예시로 제시한 것으로,

- 임계치의 세부적인 구현 방식에 있어서는 금융회사의 상황별, 시스템 별로 차등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,
- 임계치 그 자체보다는 일부 금융회사에서 CPU 등 전산자원별 임계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별도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유도하는 취지임

③ 성능관리 가이드라인에서 '대형이벤트'의 기준은?

- 공모주 청약 및 상장, 신규 서비스 개시, 대고객 이벤트 시작 등 이용자가 단기간 급증할 수 있는 이벤트에 대해
 - 금융회사가 이벤트 계획 단계에서부터 전산 인프라 측면에서 처리 능력을 준비·검증하자는 취지로
 - 금융회사별로 월간 활성이용자수(MAU), 거래규모, 업무 특성 등을 감안하여 대형이벤트의 기준을 자율적으로 내규에 마련토록 하였음

④ '대형이벤트'의 기준 등 가이드라인 세부적인 기준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적용토록 하면, 실효성이 저하 되는 것이 아닌지?

- '24년중 서면 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가이드라인 준수 실태를 점검하여
 - 형식적인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는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

☐ 아울러, 가이드라인 시행 후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서는

- 협회·중앙회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임

5 '프로그램 통제 가이드라인' 중 검증 조직 관련, 경력 10년 이상의 개발자의 수가 많지 않고 IT인력이 부족한 회사도 있어 별도 조직을 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, 해당 항목 준수가 가능한지?

☐ 금융회사 의견 수렴 결과 IT개발 관련 인력이 부족하여 해당 항목 준수가 어렵다는 의견도 많아

- CIO 등 개발담당 임원의 승인하에 기존 조직내 업무 분장 변경을 통해 검증 담당 인력을 지정 가능토록 허용하는 등 예외 조항을 포함하였음

6 '프로그램 통제 가이드라인'에서 테스트 자동화솔루션을 도입토록 규정하고 있는데, 도입 대상 및 적용 범위는?

☐ 테스트 자동화 솔루션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 및 범위에 대하여 각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수 있음